

이상적 불교지도자상 제시

불교지도자론 1

김응철 · 유승무 · 김영란 지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지도자와 추종자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불교 지도자상은 어떤 것일까?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의 수행력만을 중요시해 왔을 뿐 사회 리더로서의 불교 지도자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스님들의 올바른 수행 자체가 곧 지도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수행력은 지도력 발휘의 필수 조건임에 분명하지만 수행력이 지도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행력이 직·간접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나고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평가할 때 비로소 지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설법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첫 번째 결과물인 <불교지도자론 1>(김응철·유승무·김영란 지음, 솔바람)은 그동안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던 불교 지도자론에 대한 연구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지도력을 근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불교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이상적인 불교지도자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은이들은 <불교지도자론 1>을 불교 지도자론 연구의 첫 걸음"이라

현대인들 '수좌형' 보다 '사회참여형' 선호

고학력·도시인일수록 '봉사하는 스님' 희망

며 "새로운 리더십 이론을 이뤄내기 위한 지표조사 차원으로,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 지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부에서는 전통적인 지도력 이론을 바탕으로 불교지도력에 대한 이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불교의 리더십은 어떻게 같고 또 달라야 하는가를 다루었다.

실유형을 설정, 그 개념을 정의하고 3장에서는 불교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한다.

2부에는 두 편의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설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도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종교 지도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두 번째 조사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지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바라는 지도자상이 전통적인 '수좌형'에서 '사회참여형' 지도자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학력이 높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사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스님을 바람직한 지도자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비범한 능력만으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비전에 따라 리더십이 생긴다고 분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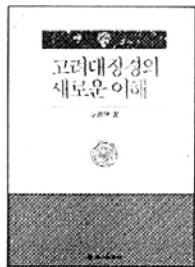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지도자상에 대한 논의는 결국 불교교단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살피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2권에서는 불교경전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3권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교지도자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4권에서는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상을 무엇인가를 연구과제로 설정했다. 값 2만원.

2장에서는 출가자의 리더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김윤곤 지음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김윤곤 지음, 불교시대사)는 고려민중의 불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정체인 고

려대장경을 분석한 연구서다. 하지만 고려대장경의 내용을 연구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에 각인된 보시자와 각수(刻手)의 이름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대장경 조성시기에 살았던 3,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고려대장경 조성명록집>을 냈던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이 지닌 가치는 단순히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일본중세 불교설화



월드컵으로 한·일간 문화교류가 활발하다. 불교 출판계에도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살피는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과 일본 중세 불교설화를 모은 <일본중세 불교설화> 두 권이 나란히 나왔다.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박용길 옮김, 운주사)은 불교철학과 인도화, 비교사상·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후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가 쓴 '동양인의 사유방법' 시리즈의

이 진실인지를 엄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비판과 반성 없이는 기성 불교교단의 대중적인 종교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값 1만2천원.

<일본중세 불교설화>(압장명 지음, 류희승 옮김, 불광출판사)는 중세 일본의 유명한 운주 수행자인 압장명이 평안(平安) 말기의 불교설화를 수집·편찬한 '발심집(發心集)'을 번역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 일본문화 중흥구조 등 구체 서술

'일본중세...' 平安말기 불교설화 '발심집' 번역

제3권 '일본인의 사유방법'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인의 전통과 문화, 일본인의 종교와 사상, 불교와 유교를 비롯한 외래사상의 수용과 변용 과정 등을 분석해 일본문화의 중흥구조와 일본인 특유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사유방식의 특징을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인문 중심의 경향, 비합리주의적 경향, 사마니즘의 문제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책을 통해 지은이는 "불교가 일본에서 비로소 석가모니의 참뜻을 꽃피었다는 일본 불교인들의 주장

현재 일본은 풍부한 불교 관련 자료와 대장경의 정리와 연구로 세계 불교 연구의 한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풍부한 불교문화 자료가 잘 보존·정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발심집'은 일본 중세의 대표적 불교설화집이다.

'발심집'은 세상의 번뇌에 이끌리는 마음을 경계하고 불교에 정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승려와 재가신도들이 세상에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는 과정과 영험, 왕생의 설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값 5천원.

당시 고려 민중의 불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정체"라고 말한다.

1편에서는 고려대장경의 체제와 조성기구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2편에서는 고려대장경 조성의 참여형태와 참여계

원 중심의 불교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족정신이 응결된 대작불사였다"며 "민족분단이라는 오늘날 현실에서 고려대장경의

보시자 이름 통해 당시 시대상 파악

층에 대해 분석한다. 3편은 고려대장경 조성의 사례분석을 싣고 있다.

지은이는 "나라가 수난에 처했을 때 현실참여의 결과로 조성된 고려대장경은 당시 사

정신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불교 중흥을 위해 애쓴 근현대 선각자의 사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계승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값 3만원.

생명 소중함 책으로

올해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에는 특별한 등 하나가 걸렸다. 바로 카린 슈미트 씨가 건 '동물들을 위한 등'이 그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온 카린은 14년 전 한국에 정착해 서울 독일학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취미는 전국의 조용한 산사를 찾아 그곳에 묵으며 사진을 찍는 것이다.

주말이면 자신이 키우는 토끼 졸리와 함께 조계사를 찾는 카린은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든 일들을 천천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살고 더 크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한국의 절"이라는 카린. 벌써 10년째 조계사를 찾은 그는 작년부



책과 삶

서울독일학교 유치원 교사

카린 슈미트

버려진 동물들 가슴아파

조계사에 위로의 등 밝혀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는 그는 "얼마만큼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김현자 씨는 이런 카린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내고 제안했다. 카린의 이야기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사랑해요>인복스는 김 씨가 카린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정리하고 카린이 찍은 사진을 함께 담은 것이다.

채식주의자로 절에서의 공양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초파일이면 절을 찾아 연등을 만들기도 하는 카린은 이제 7월이면 고향인 스위스로 잠시 돌아간다.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서다.

"곧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물들을 키우고 싶다"는 카린. 서울을 떠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한다. "아름다운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사랑해요."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낯 한	명진출판사
2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3	마음은 없다	피에르가드	탐구사
4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영사
5	영가천도	우 룡	효림
6	극락은 있다	관 정	뜻의마음
7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국문화연구원
8	첫잔 속에 달이 뜨네	지 은	도서출판 불광
9	참선교육1	현 담	도서출판 선
10	성철스님 사봉이야기	원 택	김영사

도서 안내: (02)737-0695

- 마음고치 벗고 풀어 나비되고 비단짜기 -

참나 온전 깨침

www.hanahan.org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해성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기(氣 : 에너지)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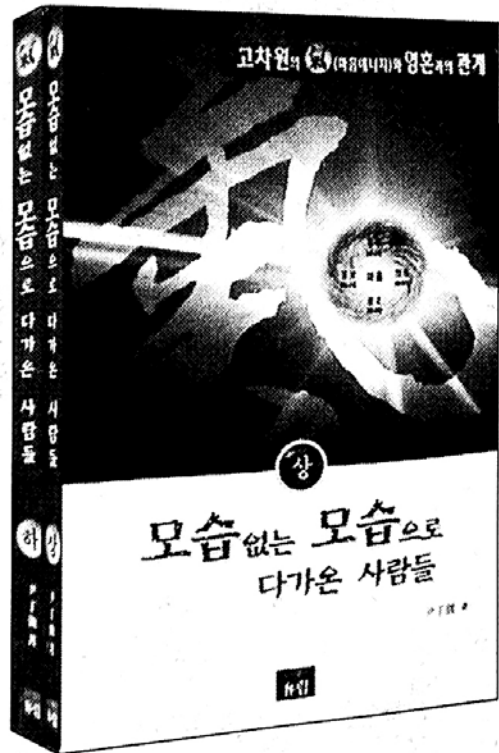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자 : 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냈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해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상, 하 권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 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킴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